

## 14만 년의 소리, 소적(簫笛)에게 배운다

이진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 옥병 소적(簫笛)을 재조명하다

2005년 11월 초 중국의 조그마한 현(縣)인 귀주성 옥병현에서 열린 <중국 국제 옥병 소적 학술연토회>(中國 國際 玉屏 簫笛 研討會) 학술연토회는 학술대회를 말한다 는 아주 의미 있는 학술대회였다. 2005년 봄 필자의 박사 지도교수였던 중국 중앙음악학원 원정방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중국 귀주 옥병에서 통소(洞簫)와 적자(笛子)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니 참석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였다. 11월에 간신히 시간을 낼 수 있다면 가 보겠다고 지도교수에게 응답을 하였기에, 우여곡절 끝에 한국통소 연구회 회장이신 이보형 선생과 필자가 중국 북경에서 만나 기차로 옥병까지 가게 되었다.

비행기로 인천에서 북경으로 날아가 중국 내 '민족민간예술집성' 일을 담당하는 문화부 소속 '중국민족문화발전중심'(중국민족문화발전중심)이 단체는 중국 내 민간에서 전승 되어오는 언어, 희곡, 음악, 무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집성하여 책을 발간하고 있다. 음악 및 무도 부분에서는 특히 악기와 관련된 문헌, 실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어 중국음악학 연구에 있어 매우 기본적인 서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라는 단체의 직원 도움을 받아 옥병으로 떠나는 기차에 오른 것이 오후 3시였다. 북경 역에서는 중국 내 소수민족이 참여하는 경연대회에서 조선족의 통소로 1등상을 수상한 연변예술대학 소속 최민이라는 학생을 만나 함께 옥병으로 가게 되었다. 이미 옥병은 중국 내에서는 소적으로 이름 난 고장이어서 그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 필자는 항상 가보고 싶었으나 뜻을 이룬 바 없기에 옥병으로 가는 길은 기대 반 호기심 반의 여정이 되었다.

만 하루를 넘긴 시간이 되어서야 옥병 역에도 착하게 되었다. 생각과는 달리 옥병 역은 아주 조그마한 시골 현의 기차역이었으며, 주변은 그리 발달하지 못한 중국 시골 농촌의 풍경을 그대로 보여준다 할 정도로 특징 없었다. 버스로 갈아타서 숙소까지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학술대회를 개최할까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다.

옥병 소(簫)가 1915년 파나마 운하의 개통을 기념하는 만국박람회에서 받은 금상



옥병이 소적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옥병이 소적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옥병은 1915년 파나마 운하의 개통을 기념하는 만국박람회에 소(簫)를 출품하여 당당히 금상을 받았고, 그 이후 소적이 바로 옥병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 해 옥병 적소와 함께 만국박람회에 상품을 출품하였던 것이 중국 국가 행사에서 공식적인 술로 사용되었던 마오타이 술(茅台酒)이었다. 마오타이 술이 중국의 얼굴이듯이 옥병의 적소도 중국의 얼굴임을 이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21세기

에 중국 옥병의 적소가 어떻게 새로운 발전을 해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이러한 큰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의 사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전 문화재전문위원 이보형 선생과 필자가 통소연구회를 조직할 때만 해도 한국의 통소는 「북청사지놀이」에서 연주되는 통소 이외에 거의 연주가 되지 않는 악기였다. 한국 통소의 음악을 찾고 연구하기를 몇 년, 최근 발전적으로 한국통소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해오고 있지만 통소와 적자를 가지고 이러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옥병 통소의 재발전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현의 의지가 놀라웠다.

21세기에 중국 옥병의 적소가 어떻게 새로운 발전을 해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열린 <중국 국제 옥병 소적 학술연토회>(中國國際玉屏簫笛研討會)는 아주 의미 있는 학술대회였다. 통소와 적자를 가지고 옥병 통소의 재발전 기회를 삼으려는 현의 의지도 놀라웠으나 무엇보다 한국 전통음악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상품으로서 어떻게 한국 전통악기를 가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술대회가 던져준 큰 화두이다.



<중국 국제 옥병 소적 학술연토회> 개막식 기념 연주회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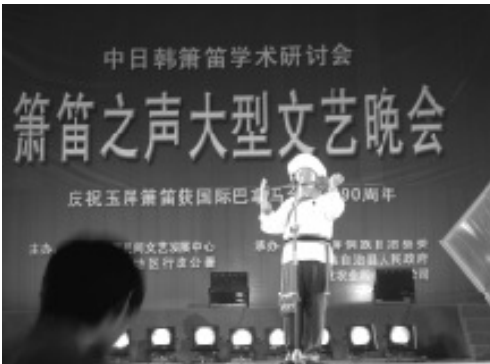


<중국 국제 옥병 소적 학술연토회> 원정방, 오국동 교수 사회

### 중국 소적의 미래는 한국 통소의 미래다!

여장을 풀고, 다음날 아침부터 뻘뻘한 일정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현 실내운동장에서 옥병의 소학교, 중학교 학생 및 몇몇의 적소 연주자들이 환영의 뜻으로 기념 공연을 펼치고,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시작되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중국 예술연구원 음악연구소 소장 왕자초 선생의 발표에서는 중국 음악고고학 자료에 보이는 소적 유물이 공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14만 년 전의 골소(骨簫)로 보이는 악기가 사천성에서 발굴되어 현재 『사이언스』에 실기 위해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기원전 8,000년 전의 골적(骨笛)이 호남 가호 지역에서 발굴되어 7음 음계를 모두 연주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도 중국 음악사의 오랜 전통에 많이 놀라고 있는 상황에서, 14만 년 전의 악기라니! 이에 대해서는 정식 논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원정방 선생은 중국 복건남음 음악에서 통소의 역할에 대한 발제를 하였고, 이보형 선생은 한국통소음악의 발전양상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필자도 한국 통소에 대한 간단한 발제를 마쳤다. 천진음악학원의 왕진흠 교수는 청대의 옥병 지역에서 제작된 통소를 자신의 선생으로부터 물려받아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악기를 학회에서



〈중국 국제 옥병 소적 학술연토회〉 기념 연주회에서  
공개상 운남성예술단 민족악기 연주가의 토량(杜良)  
연주 장면

공개하였다. 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그 악기의 정교함에 놀란 바 있다. 일본에서 참석한 고상(高桑)은 일본에서 최근 발견된 불상의 복장 악기를 소개하였으며, 반전진일(返田進一)은 중국 청대의 적자 음악이 일본에 전승된 경로 및 실제 악보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20여 명의 한·중·일 관련 학자들은 서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틀에 걸친 학술회의를 종료할 수 있었으며, 이 학회 및 학회를 축하하는 기념 연주회를 총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첫째, 이 학술대회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중·일 통소와 적자에 대한 학술대회라는 점이 중시되었다. 두 번째 현 중국의 소적 음악에서 연주 기교와 작품상의 불균형, 통소의 발전과 적자의 발전상의 불균형 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세 번째, 중국 소적 음악의 전통성을 어떻게 계승해야 하는지, 현대 과학적 요소를 소적 문화에 어떻게 결합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상호 인정하게 되었다. 네 번째 소적 예술 발전에 있어서 창작이 매우 중

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조그마한 중국의 한 현에서 개최한 〈중국 국제 옥병 소적 학술연토회〉에서는 중국 소적의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그 자리가 한국 전통음악의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필자가 속해있는 한국통소연구회가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악기학』이라는 학술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한국 통소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 문화상품으로서의 한국 전통 악기,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이번 학술대회를 참석하고 느낀바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상품으로서 어떻게 한국 전통 악기를 가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전통악기의 경우, 외국에 수출하는 예가 아주 많이 있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는 해외에 많은 화교가 있고, 또 중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을 상대로 악기를 판매하는 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중국 전통악기의 수출이라는 것은 그리 생소한 것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 문화에 집착하는 외국인들이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악기 수출이 우리 보다 매우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중국의 조그마한 옥병이라는 현에서 옥병 소적을 세계에서 요구하는 전통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악기로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옥병의 문화상품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의 악기 제작 방식이나 상품개발, 판매 망 구축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악기제작소가 있다. 국가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악기장도 있으며, 인천지역에서도 인천지역의 무형문화재로 관악기 및 악기 제작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제도를



옥병의 한 소적 판매점

중국의 조그마한 옥병이라는 현에서 옥병 소적을 세계에서 요구하는 전통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악기로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옥병의 문화상품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의 악기 제작 방식이나 상품개발, 판매 망 구축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우리도 악기들의 제작과 출품, 기증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한국의 새로운 전통악기를 문화상품으로 제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고 있다. 난계에서도 국악기촌을 만들어 악기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한국의 전통악기를 대표할 상표가 없다. 옥병은 만국박람회에서 수상한 역사적 기록을 중시하고, 혹은 황제 이후 주석들에게 진상하였던 악기를 자랑스러워하며, 이를 21세기 중국을 대표할 문화상품으로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다. 우리도 얼마 전 미국의 시카고 박람회에 출품되었던 악기들이 피바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올 해에는 파리 음악박물관에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되었던 13점의 악기가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소리」(동아일보, 2005년 9월 27일자 기사 참조). 「19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 때 전시했던 한국의 국악기가 발견됐다. 파리 음악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들

악기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등 모두 13점이다. 당시 박람회에 참가했던 한국 사절단은 모두 17점을 프랑스에 기증했으며 이 가운데 분실된 4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음악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것. 학계에 따르면 국내외를 통틀어 너무나 가족으로 만들어진 고악기 가운데 100년이 넘는 악기가 보관돼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들 악기는 그동안 파리의 여러 박물관을 거치며 줄곧 수장고(收藏庫)에만 보관돼 있어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음악박물관에서 비(非)유류 권 악기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학예연구원 필리프 브뤼귀에르 씨의 노력으로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브뤼귀에르 씨는 수소문 끝에 파리 인류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한국 악기를 찾아내 지난해 음악박물관으로 옮겨 왔다. 음악박물관은 2007년까지 비유류 권 악기 전시실을 두 배로 늘려 한국 악기 7점 기증을 전시할 계획이다. 악기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 하지만 거문고와 해금의 현을 바치는 과 일부가 파손되고 장구는 좌우 가죽만 남았다. 박물관 측은 전문가를 동원해 악기 복원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악기들의 제작과 출품, 기증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한국의 새로운 전통악기를 문화상품으로 제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분명 해외에 출품된 전통악기들은 악기부분 전통 명장(名匠)이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고고학적 유물에 대한 연구가 시작 단계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현악기 부분에서의 연구가 집중된 반면, 관악기 방향의 음악고고학적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중국예술연구원 음악연구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연구되는 출토 관악기에 대한 연구 성과를 볼 때, 우리나라관악기에 대한 음악고고학적 유물 발굴과 연구도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관악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필두로 우리 관악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조그마한 현에서 열린 <중국 국제 옥병 소적 학술연토회>가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라 할 수 있다. ●●●